

S#1. 카페.

한가로운 교외의 카페.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며, 테이블 위 노트북으로 무언가에 열중해 있는 남자. 커피는 반쯤 비어 있고 그는 미동도 없이 화면의 정보들을 눈으로 훑는다.

카페 문이 열리고 입장하는 가벼운 발걸음. 가볍게 카운터에 인사하고 거침없이 향하는 움직임. 남자의 옆에 서는 여자. 몸을 당겨 같은 화면을 바라본다.

밀려오는 인기척에 돌아보는

남자 : (흠칫) 놀래라.

남자는 이어폰을 빼고 여자는 밝게 웃는다.

여자 : 선배, 하이!

가볍게 마주 앉는 여자. 남자는 미소 띤 얼굴로

남자 : 방학하고 집에 간 줄 알았는데.

여자 : 갔다 왔지요~ 이번에 자취방 옮겨야 해서 일찍 왔어.

남자 : 그래? 어디로?

여자 : 수진 선배 이번에 졸업하잖아? 거기가 방도 괜찮고 전공관까지 거리도 가까워서 빠지는 대로 들어가기로 했어!

남자 : 그렇구나. 도와줄 일 있으면 얘기해, 시간 봐서 도와줄게.

여자 : 무슨 소리야. 선배 시간 되는 날 옮길 건데.

여자의 밝은 웃음. 남자는 잠시 바라보다가 피식 웃는다.

남자 : 그래, 커피는 시켰어?

여자 : 아니요~ 아직.

남자 : 아이스 라떼지?

일어서는 남자와 같이 일어서려는

여자 : 어, 내가 갈게 선배!

하지만 이미 남자는 자리를 뜬 후다. 다시 자리에 앉아 카운터에서 음료를 계산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여자의 얼굴에는 나지막한 행복이 맴돈다. 남자가 돌아와 자리에 앉을 때까지 여자는 남자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남자는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케이스에 넣고 커피를 한 입 마신다. 그 모습을 보던

여자 : 오빠, 우리 사귄래요?

남자는 잠시 멈칫하지만 익숙한 듯 커피를 내려놓고 시선을 맞춘다.

남자 : 몇 번 짜야?

여자 : (덤덤하게) 음~ 정확하게 스물두 번째. 첫 고백은 작년 3월 15일 수요일 개강총회 끝나고.

남자 : 대단하네...

여자 : 칭찬이죠?

남자 : 내 대답도 알겠네.

여자 : 음~ 몰라요!

여자의 밝은 웃음. 남자의 덤덤한 시선. 잠깐의 적막.

여자 : 다른 여자를 만나든, 고백 받아주든, 둘 중 하나가 될 때까지는 계속 할 거예요.

남자 : 알잖아, 내 사정.

여자 : 잘 알죠. 뭐 그런 걸로 소홀할 수 있다. 뭐 남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진 못할 거다. 뭐 기타 등등... 알아요. 근데 선배는 그래도 괜찮은 내 마음 모르잖아요.

남자 : 아니, 알아, 나도.

여자 : 아니, 선배는 몰라. 알았으면 잔인하게라도 내쳤겠지. 알았으면 받아줬겠지.

따끔하게 가시가 돋친 말이지만 여자의 얼굴은 여전히 밝다. 그녀를 바라보던 남자는 나지막이 한숨을 흘리고 노트북을 덮는다.

남자 : 내가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잖아.

여자 :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들이받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하라고.

남자 : ...그래, 미안하다. 나도 나지만 너도 참.

여자 : 대단하죠?

웃는 여자. 바라보는 남자.

END.

AND.

남자(S.O) : 정리하고 밥 먹을 건데, 괜찮으면 같이 가.

여자(S.O) : 차였는데, 맛있는 거 사주나?

남자(S.O) : 그래,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여자(S.O) : 히히, 이사하고 나면 그땐 내가 제대로 살게요.

남자(S.O) : 알겠다, 알겠어. 시간 맞춰줄게.

여자(S.O) : 하여튼, 이러니까 내가 포기를 못하지.

END.